

생태도시 순천, 음식물쓰레기 확 줄인다

배출량 매년 10여톤씩 늘어...민·관 공동 감량 총력

공동주택 종량제 확대 시행...불법투기 제로화 박차

전국을 대표하는 '생태·정원의 도시' 순천시가 환경오염의 주범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강화한다.

이는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외식문화 활성화 등으로 지난 2013년 1일 평균 63톤이었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2014년 72.9톤, 2015년 82.9톤 등으로 매년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순천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다양한 시책과 함께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공사도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모든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순천시는 지난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전문가 용역을 실시하고, 올해에는 일반가정과 소규모

식당, 다량배출 사업소별로 매년 0.5%씩 감량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시는 학교와 공공기관 자율 배식대 확대, 잔반 없는 날 운영, 남은 음식물 기부, 잔반 발생량 측정 기기 등을 도입했다.

시는 또 전자 태그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만큼 가정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R-FID)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아파트 5개 단지 3210세대를 대상으로 종량제(RFID)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40% 정도 감소했으며 가정에서 부담하는 수수료도 월평균 1300원에서 660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올해 1만 세대를 대상으로

종량제 사업을 확대하고, 오는 2018년까지 전체 아파트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설로 음식물 처리 악취 동시 해결=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음식물 처리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해룡면 대안리 일대에 1일 50톤을 처리해 왔으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과 악취 등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국비 9억9000만원 등 총 33억원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공사에 들어가 오는 8월 준공할 계획이다. 준공 이후에는 1일 최대 100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악취가 거의 없고 양질의 퇴비도 생산하게 된다.

◇쓰레기 없는 'only one' 도시 선언...불법투기 쓰레기 제로화 도전=시는 지난해 1월부터 쓰레기 없는 'only one'

도시를 선포하고 올해 불법 투기 쓰레기 제로화 달성에 도전중이다.

시는 지난해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특별관리와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생활쓰레기 발생량 30% 감소와 처리 비용 연간 17억원이라는 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시는 올해 시민 홍보단과 감시단을 정비하고 불법투기 상습지는 주·야간 감시 활동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24개 읍면동 267명의 제2기 민간 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순천시 또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하고 신규 원룸에는 쓰레기 분리배출함 설치도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불법투기 과태료도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무단투기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 매실 본격 출하...올 생산량 1만여톤

전국 최대 매실 생산지를 자랑하는 순천에서 매실이 본격 출하된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순천지역에서 출하 예상 매실 생산량은 1만여톤으로, 지난 20일부터 출하가 시작했다. 순천은 전국 매실 재배면적의 20%(1302ha)를 차지하는 매실 주산지다.

시는 올해 21개소 공동 선별장 및 매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등급별 선별 강화를 비롯한 경리가 향상 및 매실 제과 반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과 전국 청과상회, 홈쇼핑, 직거래, 가공공장 등 판매처 다양화로 생매실을 찾는 소비자가 순천 매실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부산 출하를 위해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순천지역 매실농가들이 지난 20일 매실 출하를 위해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관계자는 "최고 품질의 매실 생산을 위해 전정사업단 운영을 비롯한 햇빛을 흡수하는 최적의 수형관리와 맞춤형 재배방법을 지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전국 최고 매실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매실은 '세종실록지리지' 토공조와 '신증동국여지승람' 토산조에 햇빛을 흡수하는 최적의 수형관리와 맞춤형 재배방법을 지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전국 최고 매실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순천만정원 관람객 벌써 200만명 돌파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라

전국 단일 관광지 중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는 순천만국가정원이 올해 관람객 200만명을 조기 돌파했다. 지난 4월 14일 100만명 돌파 이후 38일만으로,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것이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지난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뒤 이를 가치에 맞는 정원 조성 및 관람객 눈높이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앞세워 치유의 장소로 자리 잡았다.

튤립, 유채, 장미, 수국, 다리아리 등 계절에 맞는 꽃과 황금 장풍어와 붉은 원숭이 가족 조형물, 다양한 사진 찍는 장소 등으로 학생과 연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순천시는 지난 22일 오후 3시 관람객 200만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한국부인회와 함께 꽃꽂이 200만명께 관람객부터 선착순 200명에게 제공했다.

또 '순천만국가정원 친구들'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 옷을 입은 50여명의 시민모델이 호수정원 주변에서 행진한 뒤 관람객들과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순천만국가정원에는 여름 관람객을 위해 멜피눔, 옥잠화 등 화려하고 시원한 분위기의 꽃 2천여 본, 목수국 등 100여종 2만 본의 수국, 장미꽃 등이 만발해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만국가정원 동문주차장 내 순천 로컬푸드직매장 1호점 개장식에서 조중훈 순천시시장과 이정현 국회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개장

320여가지 신선농산물 판매

순천시가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을 정식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순천만국가정원 동문주차장 내 순천 로컬푸드직매장 1호점 '순천만국가정원점'을 정식으로 개장했다.

순천만국가정원점은 지상 1층 333㎡ 규모의 직매장으로 지역 농가에서 재배한 신선농산물과 축산물, 가공품 등 총 320여가지의 농산물을 오전 9시부터 오

후 9시까지 판매한다.

매장은 시민주주 1089명이 참여한 민관공동출자법인 순천로컬푸드(주)가 운영하며, 대표 이사과 본부장 등 직원 10명이 매장 관리 및 판매 등을 담당한다.

매장내 상품 포장, 진열은 참여 농가들이 직접 맡아 운영하며, 신선농산물의 경우 1일 유통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당일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다음날 모두 수거한다.

또 올 하반기까지 동문에 있는 마을·사회적기업관을 리모델링해 농가레스토랑

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의 다양한 품목 확보와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 가공을 통한 소득 창출을 위해 가공센터도 건립한다.

총사업비 22억원을 들여 서면 구관리 일원에 1000㎡ 규모로 건립되는 가공센터는 오는 12월 말 완공될 예정이다.

조중훈 순천시장은 "이번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은 생태수도 순천에서 아시아 생태문화수도 중심으로 도약하는 순천에 또 하나의 엔진이 가동되는 것"이라며 "도농통합도시로 도시와 농촌이 서로 성공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농식품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전남테크노파크, 지역 농식품기업 투자활성화 협약

전남테크노파크(원장 김병일)는 "최근 전남청조경제혁신센터, 농협은행과 전남 지역의 우량 농식품 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와 체계적인 전문 컨설팅을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협은행이 운용중인 농산업기차장펀드를 통해 유망한 기술력 등을 확보한 전남지역 농식품기업에게 활발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조생산과 마케팅 등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농식품분야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남테크노파크와 전남청조경제혁신센터는 일정규모의 성장단계 농식품 후보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추천하고, 우량 농식품기업의 내역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농협은 투자포럼 및 사업설명회에 적극 참여하고, 추천된 농식품 기업에 대한 투자와 경영자문역을 파견해 경영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투자방법과 규모는 PEF(사모펀드)로 1개 기업에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김병일 원장은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유망한 농식품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투자 연계해 전남 농식품산업 성장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유탑 유블레스호텔 제주
제주 함덕해수욕장 해변 수익형 호텔
회사 보유분 마지막 특별분양

에메랄드 빛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뛰어난 조망과 옥상 바비큐장, 야외테라스, 옥상풀장, 옥상정원 등 수준 높은 부대시설 고품격 설계로 눈부신 미래가치가 펼쳐집니다

1 **연 12% 10년 확정수익보장**
(실부자금 대비 V.A.T 제외/50% 대출조건)

2 **계약시부터 계약금 X 연 5% 수익지급**

3 **연 10일 무료숙박** (상수기 2일/하수기 8일)

함덕해수욕장
 KBS2 (1박2일) 촬영지 주변

계약고객 상품권 증정

분양문의 **1600-2949**

제주현장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269-9번지 (함덕해수욕장 바로 앞, 몰래 19번길)
모델하우스 서구 농성동 481-28번지 (삼복회관-라페스타웨딩을 옆)

새 주인을 찾습니다 **매매**

아름다운 펜션 카페 영업중!!

- 70~80년된 낫골, 소나무, 백일홍,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정 잡종지 15,628㎡(5,167평), 단층 슬라브 350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12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C 15분 / 문평.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원원, 대안학교, 교회수양관, 체험학습장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 **H. 010-3119-6952**